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10. 19.(수)	담당부서	투자정책과
담당과장	김용채 과장 (044-203-4070)	담 당 자	최광준 사무관 (044-203-4071)

외국인투자유치의 양적 · 질적 성과 가시화

- 외국인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년 연속 최대 기록 갱신
- 서비스업 분야 외투 증가,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가시화 및 투자국가 다변화 등 질적인 측면의 성과도 제고

□ 정부는 우리 경제의 **성장잠재력 확충 및 고용 창출**의 일환으로 **외국인투자 확대**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.(별첨 참고)

□ **양적인 측면**에서 **외국인직접투자 규모**(신고기준)는 **'14년, '15년 연속 역대 최대 금액을 갱신**했으며, **'16년 3분기 기준**으로도 **최대 실적을 기록했다.**

<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(백만달러, %, 전년 동기비) >

구분	'11	'12	'13	'14	'15	'16.3Q	누적 ('13~'16.9월)
신고기준	13,673	16,286	14,548	19,003	20,910	15,049	69,510
증감율	4.6	19.1	△10.7	30.6	10.0	13.4	
도착기준	6,642	10,712	9,862	12,079	16,498	6,683	45,122
증감율	22.0	61.3	△7.9	22.5	36.6	△40.2	

□ **질적인 측면**에서도 **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, 신산업 투자 가시화, 신흥 투자국으로부터 투자 증가** 등 **상당한 성과**

① 제조업 대비 **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***가 높은 서비스업 분야 투자 증가

* 취업유발계수('13년, 한국은행, 명/10억 원) : (제조업) 8.6, (서비스업) 17.8

< 제조업 및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비중 (신고기준, 백만 달러, %) >

구 분	'12	'13	'14	'15	'16.3Q
제조업(비중)	6,097 (37.4)	4,648 (31.9)	7,649 (40.3)	4,565 (21.8)	4,317 (28.7)
서비스업(비중)	9,602 (59.0)	9,848 (67.7)	11,188 (58.9)	14,731 (70.4)	10,226 (68.0)

② 신소재, 바이오헬스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가시화

< 신산업 분야 투자 사례 >

• 도레이(日)는 전기차 경량화 소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PPS 수지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새만금에 총 1,900억원 투자('12.7월 ~ '16.7월)	

③ 미국, 유럽연합, 일본 등 전통적인 우리 투자국 이외에 중국, 중동 등 새로운 투자국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여 외국인투자의 저변 확대

* 중국의 한국 투자액(신고기준, 억 달러) : ('12)7.3 → ('13)4.8 → ('14)11.9 → ('15)19.8
중동의 한국 투자액(신고기준, 억 달러) : ('12)0.5 → ('13)0.8 → ('14) 2.3 → ('15)13.8

< 중동 지역 투자 사례 >

- '15.1월 두바이투자청(ICD)의 투자(1.6억불) 이후 쌍용건설은 '16.3월 회생절차 조기졸업
- 로열아틀란티스 호텔 등 두바이(2건, 12억불), 싱가포르(2.5억불)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공

④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(R&D)센터 설치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의 성과 가시화

- **글로벌기업 지역본부(5개)**
  솔베이(Solvay) 특수화학부문 국제 본부
  지멘스(Siemens) 발전사업 아태지역본부
  Basf 전자재료부문 아시아지역 본부
  콘티넨탈 전자부문(Continental Electronics) 부문 본부
  콘티넨탈 시스템(Continental Systems) 본부

- **글로벌기업 R&D센터(6개)**
  솔베이 연구개발(Solvay R&I)센터
  씨엔씨(C&C) 신약연구소
  바스프(Basf) 전자재료 연구개발(R&D)센터
  지멘스(Siemens) 메디칼연구소
  콘티넨탈 전자부문 케이 오이엠 연구개발(Continental Electronics K-OEM R&D)센터
  콘티넨탈 시스템(Continental Systems) 기술연구소

□ 앞으로도 정부는 견고한 **외국인투자 증가세를 유지**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① 2016 외국인투자주간('16.9.27~30)에서 발굴된 **유망 사업(프로젝트) 대상** 1:1 전담관리 시스템을 구축, **집중 관리**하여 조기에 투자 현실화

② 하반기 유럽, 중국, 일본 등 **주요 투자국 대상 맞춤형 통합 IR**을 개최하고 **고위급 회담 등 적극 활용**

③ **도착금액 제고**를 위해 대형 투자 프로젝트별 **고위급 밀착 전담 관리체계를 가동**

④ 신산업 육성, 양질의 고용창출 등 **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성화**될 수 있도록 **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**할 계획

* 조세감면(5년 100%+2년 50%)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(조특법 개정 추진중),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(044-203-4070), 최광준 사무관(044-203-40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별 첨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개요

□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

○ **대통령이 직접 외투기업 간담회**를 두차례('13.4.11, '14.1.9) 주재하여 **애로·건의 사항을 청취**하고, **제도 개선** 추진

* 간담회 시 수렴한 건의를 바탕으로 금융·입지 등 규제 개선, 글로벌 헤드쿼터·R&D센터 유치 확대 등 제도개선 실시 (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, '14.1월)

○ 자본·인력·기술 등 투자요소의 자유로운 유입을 저해하는 **불합리한 규제 혁신**을 통해 **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여건 조성**

* (투자요소) 항공 MRO 지분제한 폐지 등 (업종) 화장품업 등록 절차 개선,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등 (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, '15.5월)

○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**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**를 위해 **제조업 중심**으로 설계된 **기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**

* (입지지원)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요건 완화, (현금지원)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현금지원 평가근거 마련 등 (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, '15.3월)

□ 외투기업 고충처리 및 소통 강화

○ **외국인투자 옴부즈만**을 활용한 주한 **외투기업 고충처리**를 통해 旣 진출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증액투자 유도

* 고충처리 실적 : ('12) 348건 → ('13) 383건 → ('14) 437건 → ('15) 462건

○ **정부 21개부처 외투 전담관 지정**('15.6월), **외국인투자 규제정보 포탈 가동**('15.7월) 등 정부-외투기업 간 **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**

□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

○ **한국의 투자매력**을 알리고 **투자 성공전략**과 **유망한 투자기회**를 소개하는 외국인투자주간(Foreign Investment Week) **매년 개최**

○ 유망 투자유치 분야별로 **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 IR 활동** 수시 개최('13년 15회, '14년 16회, '15년 17회)